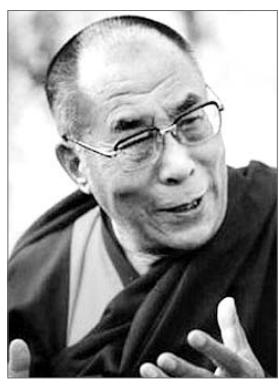


달라이라마 印 이슬람대학 명예박사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23일 인도 최대 이슬람 대학인 자미아 밀리아 이슬라미아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인도 현지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이날 카풀 시발 인도 인적자원개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나지브 정대학 부총장으로부터 학위증을 수여받았으며 “종교 간 화합을 주장해 온 나에게 이 학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달라이 라마는 또 “몇몇 과격 이슬람교도들 때문에 이슬람 사회 전체를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며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계와 종교계가 손을 잡고 비전을 가진 젊은 이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타임즈오브인디아는 전했다.

유당문화재단 화순에 장학금 2000만원



최재훈 사장은 22일 화순군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에 기탁한 장학금은 2천만원으로 화순군의 지역 인재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유당문화재단은 최상우 회장이 창업자이며 문화·체육·교育 사업을 펼쳐 인문 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활용하는 등 백년 대계 교육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건설업체인 남화토건(주)의 계열사로 지난 2000년도부터 꾸준히 화순군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지역 기업이다.

/중부취재본부 정운수기자 uns@

전호종 조선대 총장, 적십자 포장



전호종(오른쪽) 조선대 총장이 24일 오후 김필식(왼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으로부터 모범회원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대한적십자사 포장 은장을 수여받았다.

전남대 ‘향기를 머금은…’ 연승초로팀

보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대상

호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연구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제7회 보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남대 ‘연승초로(송혜진, 오성규, 이영선)’ 팀이 ‘향기를 머금은 잎새주연, 진을 따라 번지다’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다.

금상은 전남대 ‘매실총각들(심수홍, 조주원, 서창희)’ 팀과 전주대 ‘보답해요(이상향, 김유진, 송지환)’ 팀에게 돌아갔고, 은상 3팀, 동상 4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당선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대상 1팀에게 200만원, 금상 2팀 각 100만원, 은상 3팀 각 50만원, 동상 4팀 각 3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 대상과 금상 수상 3팀에게는 오는 12월 일본산업시찰 기회도 주어진다.

보해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역 기업이 이 지역 대학생을 위해 마련한 전국 유일의 공모전으로 광주·전남·전북지역 대학생 87개 팀 216명이 참가했



다.

보해 이한재 전무는 “보해 대학생 공모전이 미래 경제성장의 주인공인 지역 대학생들의 도전정신과 협동전신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호남지역 젊은 인재 육성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수상자 없는 노벨평화상 시상식

노벨위원회 “류샤오보·가족 참석 불가능” 판단

내달 오슬로에서 거행되는 올해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는 수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는다.

23일(현지시각)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 또는 가족들의 시상식 참석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수상자 없는 시상식 계획을 마련했다.

원래 시상식은 메달·상장 수여, 수상자 감연 등의 순으로 진행되고 수상은 수상자 본인이나 그가 대리해 가까운 친척만이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2월 10일 오슬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이런 순서들이 생략된다.

그 대신 무대 앞에 류샤오보의 사진이 세워지고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여배우 리브 울만이 참석해 류샤오보의 아세이 중 한 대목을 낭독하는 것으로 수상자 감연을 대신한다.

게이트 루네스타드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은 “다른 반체제 인사가 예상 이어 읽으면 별도의 수상자로 보이니까 배우가 읽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슬로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수상자 축하 횃불 행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열리지만 도장 장소인 호텔에서 수상자 손을 흔드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주인공의 부재(不在)로 인해 여러모로 혼란이 느껴질 시상식이지만, 오히려 그의 공백이 역설적으로 류샤오보의 고난과 중국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읊변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수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1986년 나치 치하의 독일 언론인 카를 폰 오스面孔 아래 74년 만이다. /연합뉴스

송의중 청소년 영어대회 1위

상금 200만원 복지단체 기부



송의중학교팀이 광주시 ‘제 1회 전국 청소년 영어 토론회’ 중등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서진영(2학년)·엄희원(3학년)·정우휘(2학년·사진 왼쪽부터) 등으로 구성된 송의중학교 팀은 1등 상금 200만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광주지방국세청 조사 2국 조사관과장 유희춘

◆광주지 서구청

◇4급 승진▲주민지원과 박화순

◇5급 승진▲경계과 김홍수 ▲주민지원과 이오행

롯데백화점 바자 수익금 300만원 기부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고광호·원장)은 24일 ‘맛있는 김치, 맛있는 나눔 캠페인’ 바자 수익금 중 일부인 300만원을 어린이재단 광주 지역본부(본부장 최삼영)에 기탁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호남대-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협약



호남대(총장 서강석·사진 오른쪽)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신선희)는 23일 평생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청년적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전남대병원, 비아 성가아동센터에 성금



전남대병원 예사랑 동호인회(회장 장현숙)는 24일 오전 병원 회의실에서 광주 비아 성가 지역아동센터(책임자 이기다 수녀)에 성금을 전달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담양소방서 ‘사랑의 김장’ 독거노인 전달



담양소방서(서장 신봉수)와 의용소방대는 24일부터 30일까지 ‘119 사랑의 김장단기 운동’을 펼쳐 관내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담양소방서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템플러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위난경씨 장남 성범군 박광영·최옥희씨 만내 혜연양=27일(토) 오전 11시 5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3층 웨딩홀.

▲윤영기(전 전남도청본부장)·백영자씨 차남 상훈(금호산업)군홍순원·조계옥씨 장녀 영순(인천계양고교사)=27일(토) 오후 1시30분 서구 삼무지구 흘리데이인호텔 3층(구 예별루션).

▲여관구(대성약국)·최영숙씨 차남 인혁군 꽈기운·니유덕씨 막내 혜선양=28일(일) 낮 12시 광주 호텔 예술의 전당 5층(밸리오호텔)

▲김진수(한국조세 연구원)·이현숙씨 아들 영빈군 정영준(수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한미옥씨 딸 승연양=28일(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아모리스홀)(구. 강남 LG타워)

▲류연욱(전 조선대교수·유한건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23일 인도 최대 이슬람 대학인 자미아 밀리아 이슬라미아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인도 현지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이날 카풀 시발 인도 인적자원개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나지브 정대학 부총장으로부터 학위증을 수여받았으며 “종교 간 화합을 주장해 온 나에게 이 학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달라이 라마는 또 “몇몇 과격 이슬람교도들 때문에 이슬람 사회 전체를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며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계와 종교계가 손을 잡고 비전을 가진 젊은 이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타임즈오브인디아는 전했다.

▲박길자씨 장남 민규(건축사)군 김대자(목사)·장은영씨 차녀 인(전남과학대학교 교수)=12월 4일(토) 낮 12시 30분 광주 무등파크호텔, 목포 피로연 25일(목) 낮 12시 상동 시내마부페오션.

▲손불초등학교 39기 모임=25일(목) 오후 7시 삼무지구 부뚜막.

▲손불초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6200.

▲광주진흥고 6회 동창회(추진위원장 김인환) 졸업 30주년 기념행사=27일(토) 오후 5시 동구 지산동 두동파크호텔 4층 크리스탈룸, 010-6797-2061.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0주년 기념식(추진위원장 이경민)=27일(토) 오후 6시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 Y(구 영산강예식장) 062-372-222-1095.

▲서석고등학교 4회 졸업생 3